

오피니언

월/요/광/장

김유선



현대 지성의 차크 라강이나 르네 지라르의 이론들을 보면 욕망이라는 단어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동력이 되는 매커니즘이다. 그림이나 문화 등 예술작품들은 욕망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도 한다.

욕망의 연금술

관' 쓴 스티브 코베는 6만 시간 이상을 리더십, 영혼, 성공 등의 단어에 투자해 욕망을 성취한 사람입니다.

수함을 만들어냈으며 컴퓨터를 발명했다. 욕망은 현대산업사회를 만들어낸 원동력이며, 현재진행형이다.

연으로 유명해진 테네시 윌리엄스는 욕망과 현실의 간극을 내면 심리에 접근해 세계적 명작을 만들어냈다.

“인생이 아름답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노벨상 작가이며 풀리처상을 4번이나 수상한 유진 오닐의 말이다.

“인생이 아름답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노벨상 작가이며 풀리처상을 4번이나 수상한 유진 오닐의 말이다.

“인생이 아름답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노벨상 작가이며 풀리처상을 4번이나 수상한 유진 오닐의 말이다.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대주그룹 문제 지역경제 파장 고려해야

광주지검이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주그룹 위기가 확산될 경우 1만 가구의 아파트 입주 대기자, 임대 아파트 3천세대, 6조4천여억원에 이르는 그룹 총여신의 부실로 인한 금융기관 손실 등 지역경제가 감내하기 어려울에 빠질 것이 불을 보듯 하다.

30여개 계열사를 보유한 대주그룹은 연매출 2조2천억원, 고용인원 5천여명과 협력업체만도 1천500여개에 달하는 등 지역경제의 중심축이라 할 수 있다.

광주상의 등이 18일 허 회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는 호소문을 발표한 것도 대주 문제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룹 총수의 부재상태가 빚어진다면 경영차질은 불가피하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8%대 심상치 않다

은행권의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사상 처음 8%를 돌파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8%대에 이른 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18일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6.87~8.02%로 지난주 초에 비해 0.03%포인트 높아졌고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금리도 8%대에 근접했다.

민간주택담대출이 279조2천억원에 달하고 있는 현실에서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하면 가계부담은 연 2조6천억원 늘어나게 된다.

서민 대출자들의 부담은 만만치 않다. 신용도가 높지 않은 서민들은 3년 전 주택을 담보로 1억원을 대출 받았을 경우 연간 이자 부담액이 당초보다 232만원 불어나게 됐다.

정부는 최근의 잇단 경고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주택담보대출금리 상승 추세를 방지하면 가계별 금융위기가 현실화될 수 있다.

법조 칼럼

류재규



정치권에서 연일 터져나오는 '의혹'과 '진실공방'으로 전국이 시끄럽다.

사실 김 변호사의 '삼성 폭로'는 '폭로'이기 때문에 의혹이라고 볼 수 없다.

기고

오승희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를 꼽으라 한다면 집중팔구는 아동의 시기라 할 것이다.

과포하는 신체적 폭력이나 정서적 무관심에 대하여 스스로를 보호할 힘이 없고, 자신의 처지를 타인에게 알려 줄 수 없으며, 자살을 기도하는 등 자살의 징후를 보이는 등 아동의 정서적 손상을 수반하며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의혹' 규명, 사법 신뢰회복 기회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검찰 수사나 언론의 취재로 인해 '의혹'은 양파 겹질 벗겨지듯이 하나 둘 사실로 드러나면서 '진실'이 되어갔다.

연일 '정치공작' '진실 규명'으로 맞서면서 매스컴을 장악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볼 때 '뭔가 있긴 있는 모양이다'고 생각된다.

아동학대, 남의 일이라 생각말고 신고를

지법령을 개정하여 아동보호와 권리 증진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는 등 선진국 수준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가 갈수록 심해져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응급환자 살리는 심폐소생술 꼭 익혔으면

최근 '웰빙'(well-being)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늘면서 각종 위험 등으로 부터 안전해지려는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

각 소방관서에서는 심폐소생술 비롯한 응급처치 방법을 관공서·단체·학교 등 교육을 희망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 교육하고 있다.

전세버스 운행 전 꼼꼼히 점검을

지난 주말 관광버스를 대절해 서울에 다녀왔다. 버스 5대를 동원해야 할 정도로 큰 행사라 계약 당시 회사 사장과 직접 사전 차량점검 문제 등을 수차례 당부한 뒤 계약했는데 서울로 가는 동안 5대의 버스중 2대의 차량에서 라이트가 꺼지고 히터 작동이 안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버스 라이트가 꺼지는 일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다른 버스를 고장 차량 앞뒤로 세워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일이 빚어졌다.

이후 이같은 사태에 대한 항의 및 환불을 요구 했으나 환불 등의 구체적 사항이 없었다는 이유로 보상을 받지 못했다.

전세 버스 등을 대절할 경우 차량 정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명문화시키는 것이 필요하지만 차량 회사도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로 해야 하는 만큼 충분한 차량 점검 등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無等鼓

절묘한 타이밍이었다. 1981년 1월 20일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 새로 취임했다.

활을 건 제로섬 게임이 시작됐다. 레이건측은 CIA국장을 지낸 부통령 후보 조지 부시, 레이건 정부에서 CIA 국장에 오른 윌리엄 케이지 등 정보통을 총동원, 카터 측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했다.

11월의 충격



이란 인질 문제는 현직인 지미 카터와 도전자 레이건이 맞붙은 1980년 선거전의 핫 이슈였다.

그런데 순항중이던 협상이 이란의 태도 돌변으로 깨져버렸다. 10월의 반전이 무산된 것이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선거일 직전 인질 석방이란 카드를 '옥토버 서프라이즈'(October Surprise), 즉 '10월의 충격'으로 불렀다.

17대 대선 정국을 뒤흔들 BBK 의혹의 핵심, 김경준씨가 귀국했다. 정치권은 물론, 온 국민이 그의 입을 주시하고 있다.

Table with 2 columns: K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Contains contact information, subscription rates, and publication details.